



PROTECTING OUR
P L A N E T

K C
NEWSLETTER

WITH NEW
TECHNOLOGY

ISSUE 79 · MARCH 2016



KC NEWSLETTER

I N D E X

- 주인도 한국대사, KC Cottrell India Co., Ltd. 방문
- KC Cottrell India Co., Ltd., 'Make in India'주간 참석
- KC Cottrell India Co., Ltd., '인베스트 카나타카 2016'

참석

- KC코트렐(주) 박기서 부사장,
'한-캐 클린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참석
 - 소각 3사, 3월 운영공무 Unit 회의
 - 클레스트라하우저만 EXCOM 개최
-

주인도 한국대사, KC Cottrell India Co., Ltd. 방문

조현 한국 대사와 부인이 Global Bengal Summit 참석 일정 중, 한국 대사관 주재원 및 재인도 한국 재계 대표단과 함께 KC코트렐 인디아를 방문하였다.

이날 프라딧 무커지 법인장과 김진옥 부사장(CFO 겸 COO)은 조현 한국 대사와 방문단에게 환경전문기업으로 성장해온 KC그린홀딩스와 KC코트렐의 노력과 미래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문단은 KC코트렐 인디아와 KC의 모든 관계사가 쌓아온 실적들을 보며 앞으로 더욱 커져가는 인도 환경 시장에서 KC코트렐 인디아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주기를 희망하였다.

조현 한국 대사 및 재계 대표단의 방문 이후, KC코트렐 인디아 대표단은 Global Bengal Summit 사전 행사에 참가하여 인도 정부 부처, 인도 기업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날 조현 한국대사의 연설 세션에도 참석하였다.

금번 조현 한국대사의 방문과 Global Bengal Summit (2016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참여를 통해 인도 환경 시장에서 KC코트렐 인디아를 다시 한번 알릴 수 있었고, 앞으로 KC코트렐 인디아의 행보를 기대하게 하였다.



KC Cottrell India Co., Ltd., 'Make in India'주간 참석

KC Cottrell India는 2016년 2월 13일에서 18일까지 열린 '메이크 인 인디아'주간 동안 뭄바이 소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KC Cottrell India 부스는 인도 주재 두산, LG, 현대, 트라, 토탈엔지니어링 등의 다양한 한국 기업과 함께 7홀 한국 별관에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쉬리 나렌드라 모디 명예 수상은 2016년 1월 13일 KC Cottrell India의 부스를 방문해 김진옥 부사장과 환경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관람객이 부스를 찾아와 KC Cottrell India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KC Cottrell India의 제품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KC Cottrell India Co., Ltd., '인베스트 카나타카 2016' 참석

KC Cottrell India는 방갈로르 궁전에서 2016년 2월 4일 방갈로르 궁전에서 열린 한국 국가 세션 및 B2G 교류에 참석하였다. 한국 대표단과 함께 온 프라딥 무커지 대표는 카나타카 부처와 정부 관료들과 환경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사 쿤두 세일즈 마케팅 담당자는 스마트 카나타카 빌딩에서 열린 한국-카나타카 협력에 관한 국가 세션의 연설자로 나서 환경 및 에너지 - 신 환경 규제를 다루는 공기오염 방지를 주제로 연설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행사에 참석한 JSW 에너지 및 아다니 인프라, 많은 다른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KC Cottrell India의 더욱 멋진 미래를 기대해본다.



KC코트렐(주) 박기서 부사장, ‘한-캐 클린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 참석

KC코트렐 박기서 부사장은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캐 클린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KC코트렐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여 양국의 에너지기술정책과 참여기업들의 주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 활동을 소개하였고, 분야별로 B2B 미팅 시간을 가져 기업들 간의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와 캐나다의 천연자원부는 이번 포럼에 앞서 양국간 에너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갱신하였는데, 특히 이번 양해각서에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열병합 발전, 친환경차, CCS(이산화탄소포집기술) 외에도 셰일가스, 오일샌드와 같은 자원분야의 협력이 추가되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과 MOU 갱신이 향후 캐나다 기업과의 정보 교류 및 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소각 3사, 3월 운영공무 Unit 회의

2016년 3월 31일 여수에 위치한 KC환경서비스 회의실에서 소각 3사의 운영/공무팀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사별 방지설비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운전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선별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초과 되거나 설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각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KC환경서비스에서는 국내 업체의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테스트 중에 있다. 투입되는 폐기물에 특수한 약품을 분사한 뒤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각로 내 클링커 발생 억제 및 운전 효율을 증대가 예상된다. KC환경서비스 박성기 팀장은 “다음 달 예정된 정기보수 기간까지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기술과 약품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기술적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여 공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KC에코에너지 에서는 소각로 내에 코팅을 통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각 효율 증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난 1년 동안 KC환경서비스,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는 컨설팅 전문업체인 맥큐스와 1차 TOP(Total Operational Performance)를 수행하면서 운영효율 증대, 원가절감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어 2016년부터는 자체적으로 2차 TOP를 수행하는 중이다. 각 사의 영업, 운영/공무, 안전/환경, 관리팀 인원들이 팀 별로 Unit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공통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클레스트라하우저만 EXCOM 개최

CH Asia는 3월14~15일 CHHK(일본)의 도쿄 회의실에서 EXCOM을 실시했다. 이번 EXCOM에는 주주사인 KC그린홀딩스의 이태영 사장과 Clestra Hauserman의 Mr.Vincent 회장이 참석하였고 CH Asia의 아시아 각 법인장들이 참석하였다. CH Asia의 구조는 CH와 KC그린홀딩스가 각각 CH Asia(한국)의 지분을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고, CH Asia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법인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

이번 EXCOM에서는 지난 해의 확정 실적을 두 주주사에 보고하였고, 2016년 1분기 실적을 공유하였다. CH Asia는 지난 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시현한 것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법인 모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법인은 1분기에만 연간 목표수주의 40%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긴 안목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한 성과가 전년부터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CH Asia는 중국과 함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개발국으로 시장을 활발히 확장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



A GLOBAL LEADER

K C
NEWSLETTER

IN GREEN BUSINESS